

보도일시	배포 즉시		
배포일시	2019. 6. 15.(토)	대변인실	044-203-6581
담당과	학생건강정책과	담당과장	조명연(044-203-6877)
		담당자	사무관 김동로(044-203-6543) 연구사 최은정(044-203-6989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인천 '붉은 수돗물' 사태 관련 긴급 현장점검 실시 수돗물 피해학교 대응 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16일(일) 오후 14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'붉은 수돗물' 사태로 인한 피해 학교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현장 점검은 5월 30일(목) 이후 서구·영종지역에 이어 강화지역까지 '붉은 수돗물' 사태가 확대 및 장기화되자,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요청(19.6.14.)이 있어,
 - 유은혜 부총리는 해당지역 피해 현황과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,
 - 대체급식 제공(빵, 음료수 등), 생수를 이용한 급식실시 등에 대한 어려운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방안(특별교부금)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.





※ 피해학교 급식제공 현황(6.14.기준) : 생수 및 급수차 활용 급식 99개교, 대체 급식 39개교, 외부운반 급식 등 11개교

- 또한, 급식제공 과정에서 학생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위생관리 준수와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,
 - 특히, 외부조리 음식 및 대체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.
 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“인천지역 학교에서의 음용수 및 급식 정상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참고> 서구·영종·강화지역 피해학교 및 급식제공 방법(6.14.기준)

지역	전체 학교수 (사립포함)	피해 학교수 (사립포함)	급식제공 방법						소계
			생수활용 급식	급수차 활용급식	지하수 등 활용급식	위탁급식 (외부운반)	대체급식	도시락 지참	
서구	127	111	64	11	-	5	31	-	111
영종	26	26	19	3	2	2	-	-	26
강화	42	12	2	-	2	-	8	-	12
계	195	149	85	14	4	7	39	0	149

※ 6.17.(월) 급식제공 방법은 학교별로 결정(6.16. 오후)

 공공누리	 출처표시	 상업용금지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(☎044-203-6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	---	--

□ **개 요**

- (목적) 인천 ‘붉은 수돗물’ 피해학교 대응 상황 점검 및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, 교육청 관계자 의견 수렴
- (일시) 2019년 6월 16일(일) 14:00~15:00
- (장소) 인천광역시교육청 3층 회의실(인천 남동구 소재)
- (내용) 인천광역시교육청의 ‘붉은 수돗물’ 사태 대응 상황 점검
 - 피해학교에 대한 생수공급 및 급식 안전관리 실태 및 점검
 - 인천지역 수돗물 피해학교 지원 필요 사항(급식비 등) 검토
 - 환경부, 인천시청 등 관계기관 협력 원인진단 협조 및 진행사항 확인
- 주요 참석자
 - (교육부) 부총리, 학생지원국장
 - (교육청) 인천광역시 교육감 및 시장 등

□ **세부 일정(안)**

시간		내용
~14:00		▪ 인천시교육청 도착, 회의실 이동
14:00~14:40	40'	▪ 비상대책위원회 인천 ‘붉은 수돗물’ 피해 상황 공유
14:40~15:00	20'	▪ 교육청 담당자 애로사항 등 청취